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보릿고개를 지날 것

[투자전략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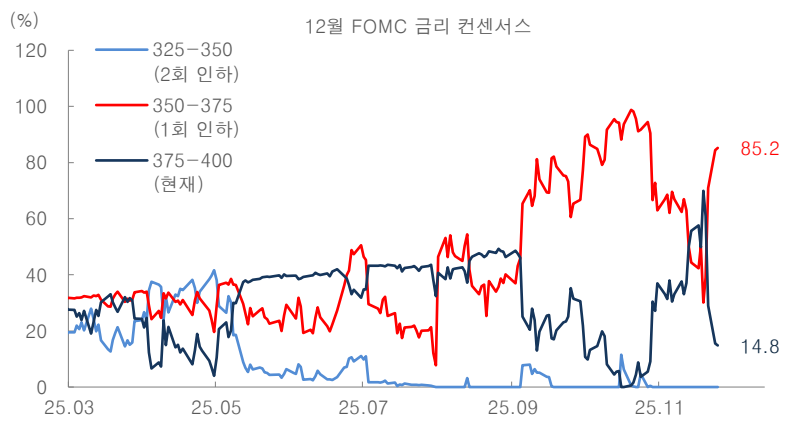
중장기 방향성(대세 상승) 유효: 12월 FOMC 전 변동성 활용 전략

- 12월 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전망 상승으로 투자심리 회복. 다음 주 역시 12월 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 컨센서스, 유동성에 대한 투자심리 변화가 증시 등락을 결정할 전망. 다만, 셧다운 여파로 주요 지표 발표가 FOMC 이후로 연기되어 시장이 의존할 데이터는 제한적. 연준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관망, 경계심리가 증시를 주도할 수 있음
- 오는 3일 ADP 민간고용지수에 주목. 11월 공식 고용지표 지연으로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체지표. 11월 민간 일자리는 10월(4.2만 건) 대비 둔화된 2만 건 증가가 예상.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금리의 명분 강화. 4일 챌린저 해고계획, 5일 9월 PCE 물가지수, 2일과 4일 제조업/서비스업 PMI 역시 통화정책 컨센서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주요 지표. 다만,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추가 인하 기준선을 높여 연준 내부 반대파를 설득하는 경우, 해당 시나리오가 시장에 우호적일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불가피
- 다음 주 단기 유동성 상황 변화에 주목할 필요. 9월부터 월말 단기 유동성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패턴 반복. 연준의 상설 레포 창구 이용 규모 또한 증가 추세이며, 11월 25~26일 이틀간 246억 달러 규모 실행. 다음주 초반 유동성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안심리는 빠르게 진정될 수 있음. 12월 연준의 QT 종료와 함께 단기 유동성 스트레스가 해소될 전망. 26년 1월부터 조기 적용 가능한 미국 대형은행의 eSLR 규제 완화, 재무부 TGA 방출 등 유동성 기대감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1일 수출입 지표와 3일 3분기 GDP 속보치 발표가 예정. 견조한 수출 및 경제 펀더멘털이 확인될 경우,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의 분위기 전환과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9%에서 1.0%로 상향 전망
- 중국 제조업/서비스업 PMI에서는 소비 시즌 기업들의 판매 동향이 핵심 포인트. 2026년 남은 기간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 약화로 기대감은 높지 않음
- 12월 FOMC 전까지 심리 변화에 따른 등락은 불가피하지만, 코스피 선행 EPS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가 조정으로 선행 P/E는 10.1배 수준까지 하락. 선행 P/B 역시 1.18배로 하락하며 밸류에이션 매력 증가. 약해졌던 투자심리 또한 저점을 다지는 중. Fear & Greed 지수는 현재 18로 여전히 '극도의 공포' 구간에 위치하지만, 11월 20일 7로 저점을 형성한 이후 반등 중.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 유효. 특히 코스피 선행 EPS 성장이 유효하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주도주(반도체, 조선, 방산, 지주, 증권, 기계 등) 중심의 비중확대 전략 지속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 발언(11/21) 이후 12월 금리인하 기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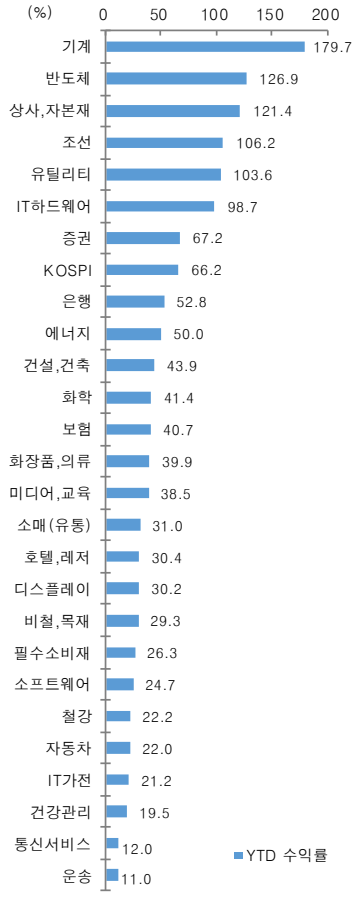


자료: CME,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등락율(%)						
	(p)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3,987	0.7	-0.5	-1.4	25.1	51.2	59.3	66.2
에너지	4,891	-0.8	-4.2	-4.2	23.5	51.2	45.5	50.0
화학	4,890	0.3	0.4	-4.8	24.5	62.0	24.0	41.4
비철,목재	7,074	9.9	11.6	8.5	32.6	53.2	26.3	29.3
철강	2,186	-1.1	-2.3	-3.8	3.3	24.3	6.3	22.2
건설,건축	1,479	-0.3	1.4	-6.8	-3.1	5.5	34.8	43.9
기계	9,224	0.5	-2.2	-5.3	26.9	71.8	169.9	179.7
조선	9,038	-0.6	-4.7	-14.0	7.6	40.9	119.5	106.2
상사,자본재	3,213	0.2	-1.3	-5.1	23.0	35.6	112.8	121.4
운송	1,624	0.7	0.4	-4.7	-8.6	-4.3	4.2	11.0
자동차	10,608	0.9	1.3	2.3	12.1	33.6	21.4	22.0
화장품,의류	5,148	1.1	1.4	2.7	-0.9	9.8	40.2	39.9
호텔,레저	2,176	-1.1	-5.1	-0.1	-3.8	14.4	17.7	30.4
미디어,교육	744	2.8	0.7	-1.6	0.3	6.6	29.1	38.5
소매(유통)	1,980	-0.4	-3.8	6.5	9.0	5.4	23.7	31.0
필수소비재	7,064	1.0	0.5	4.8	0.8	10.9	23.6	26.3
건강관리	10,436	-0.1	7.3	10.9	21.0	29.6	25.3	19.5
은행	2,638	-0.5	1.6	4.0	10.5	28.5	34.7	52.8
증권	2,205	-1.0	-0.6	-6.3	9.2	34.7	61.3	67.2
보험	10,118	0.6	4.0	0.3	7.8	33.9	28.5	40.7
소프트웨어	7,240	-2.6	0.0	-1.9	1.6	23.3	20.2	24.7
IT하드웨어	1,421	0.3	8.4	17.9	55.7	103.5	107.9	98.7
반도체	17,732	1.8	-0.2	1.4	65.6	115.0	120.1	126.9
IT가전	2,054	-0.1	-0.8	-4.2	24.0	62.9	7.3	21.2
디스플레이	756	0.6	1.4	-10.9	5.2	40.4	23.7	30.2
통신서비스	363	-0.4	0.1	0.2	-3.9	3.4	1.7	12.0
유틸리티	1,473	-1.1	4.2	12.1	26.6	49.5	68.7	103.6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5년	2026년	12M fwd	2025년	2026년	12M fwd	2025년	2026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21.2	18.6	18.8	3.4	3.1	3.1	16.0	16.7	16.7	0.1	1.9	
선진국	22.2	19.6	19.7	3.7	3.4	3.4	16.7	17.3	17.3	0.1	1.7	
신흥국	15.4	13.2	13.4	2.0	1.8	1.9	13.2	14.0	13.9	0.1	2.9	
북미	24.8	21.7	21.8	5.0	4.5	4.5	20.3	20.8	20.7	0.5	3.1	
유럽	16.3	14.5	14.6	2.2	2.1	2.1	13.5	14.3	14.2	0.0	0.9	
퍼시픽	17.6	16.0	16.3	1.7	1.6	1.7	9.9	10.3	10.2	-0.4	0.2	
라틴	10.7	10.2	10.2	1.9	1.7	1.7	17.7	17.0	17.0	-0.6	2.1	
EM 유럽	9.3	8.2	8.2	1.3	1.2	1.2	13.9	14.2	14.2	-0.1	0.0	
EM 아시아	16.8	14.1	14.3	2.1	1.9	1.9	12.5	13.4	13.3	0.2	3.4	
선진 시장												
S&P 500	25.0	21.9	22.0	5.2	4.6	4.6	20.6	21.1	21.1	0.5	3.0	
NASDAQ	34.1	27.4	27.5	7.5	6.4	6.4	22.0	23.4	23.2	0.8	5.4	
프랑스	17.4	14.6	14.8	2.0	1.8	1.8	11.2	12.6	12.5	0.0	1.4	
독일	16.1	14.2	14.2	1.7	1.6	1.6	10.8	11.6	11.6	-0.1	0.7	
영국	14.1	12.6	12.8	2.1	2.0	2.0	14.9	15.6	15.5	0.2	2.1	
일본	17.4	15.5	16.0	1.7	1.6	1.6	9.6	10.1	10.0	0.4	2.4	
신흥 시장												
중국	14.1	12.5	12.7	1.6	1.5	1.5	11.4	11.8	11.7	0.4	2.0	
인도	25.0	21.4	22.5	3.6	3.3	3.4	14.6	15.2	15.0	-0.4	0.9	
한국	14.0	10.1	10.4	1.5	1.3	1.3	10.6	13.0	12.8	1.3	15.1	
대만	20.3	16.9	17.1	3.5	3.1	3.2	17.3	18.5	18.4	0.2	2.7	
브라질	9.5	9.1	9.2	1.7	1.6	1.6	18.4	17.3	17.4	0.0	0.5	

기준일: 2025.11.26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8.8							○ ●			
선진국	19.7							○ ●			
신흥국	13.4							●		○	
북미	21.8							○ ●			
유럽	14.6						●		○		
퍼시픽	16.3								○ ●		
라틴	10.2							●			○
EM 유럽	8.2								●	○	
EM 아시아	14.3							●	○		
S&P 500	22.0							○ ●			
NASDAQ	27.5					●	○				
프랑스	14.8						●		○		
독일	14.2							○ ●			
영국	12.8								○ ●		
일본	16.0							●	○		
중국	12.7							●		○	
인도	22.5						○ ●				
한국	10.4					●		○			
대만	17.1						○	●			
브라질	9.2								●		○

기준일: 2025.11.26.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5년	2026년	2027년	26-27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9.6	14.0	13.2	13.6
	선진국	9.2	13.4	13.3	13.4
	신흥국	12.2	17.1	12.8	15.0
권역(소)	북미	13.7	14.1	14.5	14.3
	유럽	0.0	12.5	11.7	12.1
	퍼시픽	1.6	10.7	8.5	9.6
	라틴	7.0	5.2	11.9	8.6
	EM 유럽	23.7	14.4	11.8	13.1
	EM 아시아	11.6	19.2	13.4	16.3
선진국	S&P 500	12.8	14.4	14.5	14.5
	NASDAQ	53.0	24.6	19.5	22.0
	프랑스	-7.2	19.2	11.0	15.1
	독일	1.4	14.0	15.0	14.5
	영국	3.6	11.4	10.8	11.1
	일본	2.8	12.1	9.4	10.7
신흥국	중국	3.6	13.1	13.4	13.2
	인도	11.7	16.6	14.5	15.6
	한국	31.2	37.9	9.5	23.7
	유럽	0.0	12.5	11.7	12.1
	브라질	3.1	3.5	12.8	8.1

기준일: 2025.11.26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